컴퓨터공학과 다전공 지원사유서

2022101630 송호근

*모든 항목은 400자(공백제외)내외로 작성하였습니다.

1) 컴퓨터공학과 진로를 위해 준비한 노력(e.g., 들은 수업, 수업에서 배운점, 학점)

저는 현재 sw중점과목인 '창의적사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코딩'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수업을 수강신청한 이유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컴퓨터의 세계가, 저의 심화전공인 외식 산업분야의 물리적 한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의 수업을 통해서 파이선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들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도와주는 input()함수입니다. 파이선의 프로그램 모드에서 input()함수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면 프로그램 개발자만 입력이 가능한 print()함수와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IDLE Shell 파이썬에서 값을 입력할 수 있음에서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업을 수강중인 상태여서 학점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코딩 수업을 들으며 찾은 가능성을 저의 삶 속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학습하여 저의 전체 평균학점인 4.2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이 구현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코드 line 수, 기능, 프로젝트의 난이도 등, Github등의 link를 추가해도됨.)

저는 위의 sw중점과목을 수강하며 파이선 실습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 비밀번호 전송 예제 프로그램은 print()함수뿐만이 아닌 input()함수를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집적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더불어 빵의 분배, 방의 넓이 및 신체질량지수 (bmi)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은 input()함수의 결과 문자로 나오는 값을 정수로 만들어주는 int()함수 및 소수로 만들어주는 float()함수로 감싸어 연산이 가능하게 프로그래밍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가 구현한 프로그램들은 코드 line의 수가 10~25줄 사이이고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는 파이선의 기본기를 배워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드 line의 수를 늘려나가 더욱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저의 Github링크는 github.com/hogeunSong/Python.git입니다.

3) 졸업 후 진로 계획(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저는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인 푸드테크(Food tech)분야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체질 및 식품소비에

관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음식연구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개발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일을 끝낸다면 제가 개발해낸 음식이 방 안에서만 잠들어 있어 진정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와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매자들의 식품소비 분석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자가 체질 진단 서비스 제공 등의 복합적인 일을 시공간의 제약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저에게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해답을 바탕으로 저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개발하는 음식연구가와 더불어 개개인에게 맞춤형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공학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가 되고자합니다.

4) 컴퓨터공학과에서 본인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전문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만을 가진 단편적인 사람보다 다른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컴퓨터공학과에서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래밍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에 외식분야라는 조미료를 가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저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전공필수 과목인 웹/파이선프로그래밍과 더불어 전공선택 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SW스타트업 비즈니스와 같은 수업을 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직접 개척하고 이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저의 열망은 공학적 윤리의식을 갖추고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컴퓨터공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여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